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림리 공원부지 내에 건립하려고 하는 도서관 문제와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문제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마음이 매우 착찹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거창군은 군정 목표의 하나로 시급 수준의 거창을 만들겠다고 설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군수께서도 선거공약을 통하여, 취임사를 통하여, 인구 10만의 거창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물론, 도서관 건립과 생활체육공원 조성문제는 전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계획이라고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용역회사측에 거창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 반영시켰을 것이며, 또한 확인을 한 후에 군민을 모시고 보고회나 공청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 일입니까?
어떻게 하여 이렇게 무성의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계획서를 가지고 군민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청회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서관 계획서를 살펴보면 건축 연면적 648평에 200여 명 수용규모의 건축을 하면서 법정주차대수 7대에 좀더 여유 있게 2대를 더 확보하여 9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였다고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자동차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을 어떻게 법으로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 부족 문제로 논란이 일자, 담당자의 설명은 도서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차를 타고 오지 말라고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된다고 하니, 실무 담당자의 너무나 명쾌한 해명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거창군이 추구하는 시급 수준의 도시건설을 위한 C급 발상에 의한 계획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당시 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차문제와 건물의 위치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며 우려를 하였으나, 행정은 강행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모두가 아쉬워하며 잘못되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두번 다시 문화센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며 C급의 발상에서 시급 수준의 발상으로 발상 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문제도 똑같은 맥락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계획서가 과연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는 군수의 구상과 부합되는 계획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점진적인 주5일제 근무제의 도입과 생활의 여유로움에서 오는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체육시설이 필요하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계획서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주차장은 118대를 주차하도록 4군데에 분산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종합계획도에는 3군데에만 표기가 되어 있는 등, 보고서가 무성의하며 주경기장 하나만 하더라도 관중 5천 명 수용을 계획한다면 118대의 주차장은 설계기본에도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며, 참고로 둔치주차장은 불법시설임을 밝혀 드립니다.

둘째,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을 무시한 테니스코트의 분산배치가 되어 있으며,

셋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용된 스포츠 환경분석 자료는 기초체육시설들이 엉터리 자료로 나타나 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넷째, 거창군이 지역의 사업자와 사업경쟁을 하거나, 하고 있는 개인사업을 파산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수영장은 보호되어야 하며, 새로운 수영장 건립은 정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완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궁도장의 표적판 후면은 당장에라도 데드라인을 설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출입을 금지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본구상도와 기본계획에도 나타나 있듯이 거창군의 위상에 걸맞고 대회유치가 가능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주경기장 관중석을 5천 석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이 과연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시급 수준의 체육시설이며, 군수께서 공약한 인구 10만을 내다보는 우리 거창의 먼 훗날의 모습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창은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먼 훗날의 초석을 다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 8. 17

의 원 정 종 기